

조선과 한국

- 김병로 / 2003. 7. 31 -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실장 역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긴장과 위기 속에서도 남북교류와 왕래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NGO단체들은 꾸준히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북한은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에 이어 대구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전후로 대규모 이산가족의 상봉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왕래가 늘어나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국가호칭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땅을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로 구분하여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밖을 조금만 벗어나면 남한과 북한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과 조선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남한을 '한국'이라 부르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중국과 일본을 한 두 번 정도만 왕래한 사람들이라면 조선과 한국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식명칭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조선'이라고 불립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대해서 조선반도라 부르고, 한민족 대신에 조선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북한은 남한사람들이 자기들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이 우리를 '남조선'으로 부를 때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를 조선민족으로 부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국가의 호칭을 조선으로 하느냐, 한국으로 하느냐를 두고 자주 다투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남한, 북한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한(韓)민족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민족의 기원을 한민족에서 찾지 않고, 부여와 고구려가 발전한 조선민족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한(韓)민족이란 부족국가 형성이전의 농경민족이었던 삼한과 신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최근에 단군릉을 발굴하여 단군의 후손임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사의 뿌리는 부여와 고구려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명칭의 차이로 인해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남북학술회의에서는 '코리아반도'라는 영어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선(한)반도를 병기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소산을 총칭하여 문화라고 부른다면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과 '조선'이라는 엄연한 두 문화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각자의 국가영역 속에서 학습한 행동양식, 의식과 신념체계가 매우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8년 동안 한국과 조선의 문화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즐거 듣는 음악과 생각하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조선은 서로에 대해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중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의식의 차이가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가호칭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 연변지역이나 일본에서는 조선과 한국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만 아직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호칭이 약간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는 의미에서 ‘이북’과 ‘이남’ 혹은 북과 남이라는 지리적 어휘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국가에 대해 첫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사업 등으로 남북한 간에 인적 접촉과 왕래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면 반드시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호칭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면 이미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한국과 조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을 한국과 조선으로 불러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한국과 조선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15일 북쪽에서 오는 선수단과 응원단들에게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응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